

2025年 神戸電鉄敷設工事朝鮮人犠牲者追悼会 追悼文
2025년 고베전철 부설공사 조선인 희생자 추모회 추모문

1996年11月に「神戸電鉄敷設工事朝鮮人労働者の像」が建立されてもう29年になります。今日、29回目の神戸電鉄敷設工事朝鮮人犠牲者追悼会を迎えることになりました。

1996년 11월 '고베전철 부설공사 조선인 노동자의 상'이 건립된 지 29년이나 됩니다. 오늘 29차 고베전철 부설공사 조선인 희생자 추모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犠牲者13名のお名前を紹介します。

故韓啓文氏、趙鳳珠氏、金相燮氏、黃範寿氏、朴鍾述氏、金永得氏、姜太龍氏、
朴南權氏、金鳳斗氏、金東桂氏、李命福氏、姜学守氏、陳南述氏

희생자 13 명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고 한계문씨, 조봉주씨, 김상섭씨, 황범수씨, 박종술씨, 김영득씨, 강태룡씨,
박남근씨, 김봉두씨, 김동계씨, 이명복씨, 강학수씨, 진남술씨

あなた方は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によって故郷を離れ遠い異国の地である日本に生きる道を求め渡ってきました。そして、この地で鉄道工事に従事しました。当時、神戸電鉄敷設工事に、千数百人の朝鮮人が関わりました。工事に従事したのはほとんどが朝鮮人でした。この鉄道工事は危険で過酷な重労働でした。その上、賃金の未払いや、天引きなどの不当きわまりない行為があり、労働争議も多く、苦難の連続でした。そんな中、事故も多発し、5箇所の事故で13人が亡くなりました。新聞で報道された重傷者だけでも8人になります。

여러분께서는 일본의 조선식민지 지배로 인해 고향을 떠나 먼 이국땅인 일본에 살 길을 찾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철도 공사에 종사했습니다. 당시 고베전철 부설공사에 천수백 명의 조선인이 참여했습니다. 공사에 종사한 사람은 대부분 조선인이었습니다. 이 철도공사는 위험하고 가혹한 중노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임금 체불이나 불법공제 등 부당하기 짝이 없는 불법행위가 있었고 노동쟁의도 많아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도 많이 발생하여 5곳의 사고로 13 명이 숨졌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중상자만이라도 8 명이 됩니다.

神戸電鉄は神戸市と周辺地域を結ぶ、主要交通手段として、たくさんの人びとが日々の生活で利用していますが、朝鮮人の労働と犠牲の上に完成した事実を私たちは忘れることなく、伝えてゆ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고베전철은 고베시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대중 교통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고 있지만, 조선인의 노동과 희생 위에 완성된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전달해 나가야 합니다.

「神戸電鉄敷設工事朝鮮人労働者の像」に今日まで日本の各地から、韓国からも多くの人びとが訪れ、犠牲者を追悼し、神戸電鉄工事と朝鮮人について歴史的事実を学んでゆきました。

'고베전철 부설공사 조선인 노동자의 상'에는 오늘날까지 일본 각지에서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희생자를 추모하고 고베전철 공사와 조선인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배워갔습니다.

・朝鮮新報が「事実がそこに～各地に佇む朝鮮人犠牲者追悼碑」シリーズで紹介記事が4月11日号で掲載された。

・조선신보가 '사실이 거기에~각지에 서 있는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시리즈로 소개 기사가 4월 11일호에 실렸다.

・慶南道民日報記者の取材があった。6月11日、慶南道民日報の記事が同新聞社、新聞に出た。ユーチューブに取材内容がアップされた。

・경남도민일보 기자의 취재가 있었다. 6월 11일 경남도민일보 기사가 이 신문사, 신문에 났다. 유튜브에 취재 내용이 올라왔다.

今日の在住外国人労働者問題の根源ともいえる問題が神戸電鉄工事ではたくさんありました。労働条件の悪さ、賃金の未払い、21世紀に入った現在でも外国人労働者の差別的待遇が多く、人権無視もたくさんあります。私たちは再び、人間を蔑視し、差別扱いすることが無い社会を作るため活動してきます。

오늘날 거주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근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문제가 고베 전철 공사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나쁜 노동 조건, 임금 체불, 21세기에 들어선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적 대우가 많고 인권 무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인간을 멸시하고 차별 취급하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29回目を迎えた今、歴史認識においてその歪曲が深刻です。過去の植民地主義に対する反省が無く 日本社会の底にはいまでも戦前と同じような排外主義と皇国史観が堂々と主張されています。

そればかりでなくウクライナでの戦争やイスラエルとパレスチナの紛争は停戦が合意したとはいえ、憂慮される事態が起きています。人権を擁護し反戦争平和な社会の強化を目指してきたわたしたちは気を引き締め、声を上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

29년차를 맞은 지금 역사인식에 있어서 그 왜곡이 심각합니다. 과거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이 없어서 일본 사회의 밑바닥에는 지금도 전쟁 전과 같은 배외주의와 황국사관이 당당히 주장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정전이 합의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려스러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을 옹호하고 반전쟁 평화사회 강화를 지향해 온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過去の歴史の真実を忘れずに後世に伝えていきます。このモニュメントを通じて人権、平和の考えを広めて行きます。また日本と南の韓国、北の朝鮮、両国国民の友好関係が更に強められるよう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決意を新たにしています。

과거사의 진실을 잊지 않고 후세에 전하겠습니다. 이 기념물을 통해 인권, 평화의 생각을 널리 퍼뜨려가겠습니다. 또 일본과 남쪽의 한국, 북쪽의 조선, 양국 국민의 우호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犠牲者の皆様のご冥福を心よりお祈りします。

安らかにお眠り下さい。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2025年10月19日(日)

2025년 10월 19일(일)

神戸電鉄敷設工事朝鮮人犠牲者を調査し追悼する会

会長 徐根植

고베 전철 부설공사 조선인 희생자를 조사하고 추모하는 모임

회장 서근식